

또다르 자작극은어다

실재와 왜곡,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가족의 존재

장소. 부산 액터스 소극장 남천동 지하철 1번출구,
KBS방송국 맞은편 하이마트 뒤

일시. 2007년 6월 14일(목)~23일(토) 평일 8시, 주말 6시

작가. 김숙경

연출. 최향운, 김숙경

출연. 최향운, 우명희, 최현경, 김현진, 김태훈, 박미경

주최. 부산 창작극연구회

주관. 부두연극단

후원. *Star* 스타뷰티아카데미

티켓. 일반 15,000 | 중고생 8,000(단체 20명 이상 30%할인)

문의. 051)611-6616 | cafe.daum.net/actorsplay



작가의 말

이 작품은 2000년에 초연되었던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초연의 미흡한 점들을 되짚어 일정 부분 수정을 시도하였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1월 1일에서 장마철로 변경하였고, 등장 인물에도 다소 변화를 주었다.

가족은 한 개인이 태어나 처음 만나는 가장 작은 사회이면서 죽을때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의미는 각자가 모두 다르며, 때로는 이 다름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가족의 관계란 다른 인간 관계들에 비해 훨씬 강박적인 것이다. 아무리 가족의 해체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대라 해도 가족은 개인이 결코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이다. 심 없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현실과 달리 의식 속에서는 끊임없이 가족의 존재를 무화(無化)시키는 극중 인물 영주는 어쩌면 우리들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양면적 시각이기도 하다.

7년 만에 다시 이 작품을 대하고 보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따뜻한 시각으로 극중 인물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간의 소통,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램이 더 많이 생겨났다. 작품이 갖고 있는 다소간의 무거움과 비극성 아래 감춰진 실낱같은, 그러나 태산 같은 긍정적 변화의 여지가 관객들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꿈꾼다.

작품줄거리

지루한 장마,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한 가족이 모인다. 남편의 죽음 이후 가장의 역할을 큰 딸에게 넘겨버린 어머니, 대학을 중퇴하고 옷 수선으로 가정을 이끌어 온 영주(장녀), 변호사가 되었으나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진(차녀), 돈 많은 유부남을 유혹해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한 영미(삼녀),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에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민석(막내아들)이 이들 가족 구성원이다.

제사의 준비와 아버지 기일 때면 걸려오는 괴전화를 둘러싼 일상적인 가족의 대화는 어느덧 서로의 상처를 덧내는 화살로 변하면서 각자가 감추고 있던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가 쏟아진다. 이 소리는 몸서리치게 이기적인 각자의 독백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추억과 그리움 하나로 황량한 현실을 견뎌내던 영주는 궤변과도 같은 그들의 이기심에 질려 살인을 저지른다.

어머니와 두 여동생의 죽음 이후, 또다시 장마철 어느 하루가 영주의 가족에게 펼쳐진다. 죽음 이전과 어느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간들이...

연출의도

이 극은 영주의 의식(意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과거에 대한 기억, 기억에 대한 해석, 꿈의 잔영, 환상 등 복잡한 층위의 것들이 혼재해 있다. 때로는 무엇이 사실이었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었는지조차 의문스럽기도 하며, 어떤 순간은 지나치게 확대되고 또 어떤 순간은 소멸될 만큼 축소되어 남겨져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작품 속 사건이나 상황은 실제 존재했던 현실일 수도 있고 영주의 의식 속에서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 의식 속의 시간과 공간이 인과적으로 연관 맺지 않듯, 작품 속 상황도 순차적이고 인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실재와 왜곡,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면서 표면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비사실적 원리가 극 전반을 지배하도록 연출하였다.

영주의 의식 속 혼돈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가족 간의 소외와 오해,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다. 가정이라는 평범한 듯 보이는 울타리, 그리고 일상이라고 불리어지는 대부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은 과연 얼마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지 멈추어 생각해 보고 싶었다. 특별한 사건이나 시간보다 그저 그런 일과와 일상이 훨씬 많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쩌면 일상의 아름다움을 팽개쳐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남의 것이 무조건 좋아 보이는 마음의 요사스러움처럼, 일상 저 너머에 무언가 또다른 시작이 있을 거라고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다른 시작을 꿈꾼다.

기획의도

부산창작극 연구회는 1994년 발족하여 신인극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창작된 희곡의 공연 화를 지원하는 단체로 그동안 3권의 창작희곡집과 2번의 발표 공연을 해온바 있다.

주로 토론에 의한 작품수정을 통해 문학성과 연극성의 조화를 꾀하며 즉시 상연이 가능한 공연 대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목표인 창작극 연구회는 김문홍, 이성규, 허정숙이 주 멤버이며 희곡을 쓰고 싶거나 쓰여진 희곡의 보완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단체다.

작품이 제시되면 부산지역에 있는 문학관련 교수, 연출가, 평론가들도 필요에 따라 토론에 초청되며 완성된 희곡은 부산창작극 연구회 대본 집으로 출판되어 전국에 배포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016-579-4362 허정숙 간사에게 연락바란다. [또다른 시작은 없다] 이번 작품은 김숙경 작품으로 오랜 침묵 끝에 최향운과 만나 심도있게 무대화 한 작품이다 그녀들의 숨은 열정을 만나본다.

작가/연출프로필

작가: **김숙경**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강사

[또다른 시작은 없다], [지상에서 가장 슬픈], 등 작/연출

연출: **최향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대학원 졸업

[죽이지도 않은 자에 대한 책임], [오픈, 플리즈], [쌍시], [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을 소나타], 등 연출

[또다른 시작은 없다], [잘자요, 엄마], 등 출연

출연진프로필



어머니
최향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대학원 졸업
[또다른 시작은 없다]
연출/출연



영주
우명희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불의가면], [잘자요 엄마],
[토막], [타오르는 어둠],
[19그리고80], 외 다수



영진
최현경

[산불], [에쿠우스],
[19그리고80],
[살인자들]외 다수



영미
김현진

[창세기전], [B,C2430],
[아프리카신드롬],
[휘투타],
[얼굴없는피카소]



아버지
김태훈

[에쿠우스],
[환화여 환하여],
[살인자들]외 다수



슈퍼댁
박미경

[오프스테이지],
[로베르토쥬코],
[19그리고80], 등

스텝소개

기획 - **박혜인**

무대미술 - **김연숙**

조명 - **김수수**

분장 - **이연경**

음향 - **구미석**

무대감독 - **최성우**